

엔터투어리즘

성준원 _ (02) 3772-1538 jwsung79@shinhan.com

12월 출입국자: 출국자 및 중국인 증가, 일본인 감소



비중확대 (유지)

- ◆ 내국인 출국자: 12월 중 사상 최대. 1,169,970명(+14.6% YoY) 기록
- ◆ 외국인 입국자: 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834,992명(-0.9% YoY) 기록
- ◆ 수혜주: 여행주(출국자 증가 수혜), 외국인 카지노(중국인 증가 수혜)

내국인 출국자: 12월 중 사상 최대. 1,169,970명(+14.6% YoY) 기록

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12월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는 1,169,970명(+14.6% YoY)을 기록했다. 2011년 11월 태국 홍수 기저효과와 12월 자체적인 징검다리 공휴일 덕분에 절대적인 출국 수요가 증가했다. 2012년 전체 출국자는 1,374만명(+8.2% YoY)으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2013년 연간 출국자는 최소한 1,447만명(+5.3% YoY)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입국자: 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 834,992명(-0.9% YoY) 기록

12월 외국인 입국자는 2개월 연속 감소한 834,992명(-0.9% YoY)을 기록했다. 일본인 입국자는 227,227명(-24.0% YoY)으로 4개월째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입국자를 감소시키고 있다. 발단은 9월~10월 독도 영유권 문제였다. 11월~12월 부터는 원/엔 환율의 급락까지 겹치면서 추세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2013년 일본인 입국자는 303만명(-13.8% YoY)으로 2012년의 352만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0년의 302만명과 비슷한 수준인데, 2011년 대지진 이후 급증했던 일본인 입국자 증가 효과의 소멸을 가정했다.

반면, 중국인 입국자는 195,997명(+23.2% YoY)으로 역대 12월 중에서 가장 많았다. 2012년 중국인 입국자는 284만명(+27.8% YoY)이었고, 2013년에는 347만명(+22.3% YoY)으로 예상된다.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 증가율도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2년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1,114만명(+13.7% YoY)이었고, 2013년에는 1,175만명(+5.5% YoY)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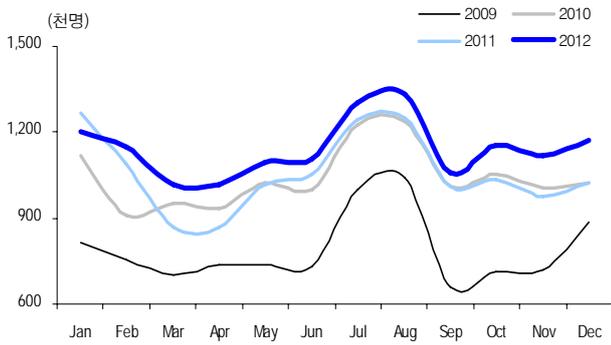
수혜주: 여행주(출국자 증가 수혜), 외국인 카지노(중국인 증가 수혜)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및 징검다리 공휴일 증가에 힘입어 2013년에도 출국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1~3월 예약률이 전년 대비 좋아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1Q13 실적은 긍정적이다.

외국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와 GKL은 일본인 VIP 고객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중국인 VIP 및 일반 고객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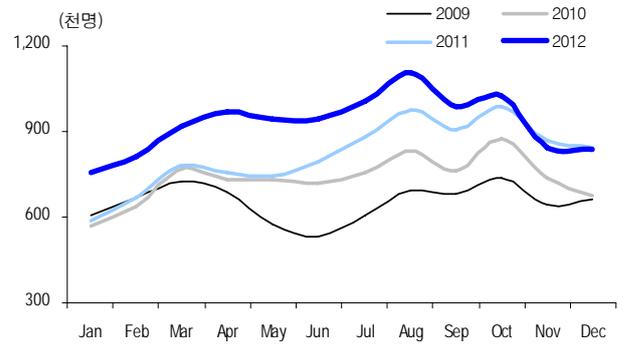
면세점은 일본인 입국자 감소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인은 줄어들지만, 중국인과 한국인의 면세 쇼핑 증가 추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호텔신라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편이 좋겠다.

출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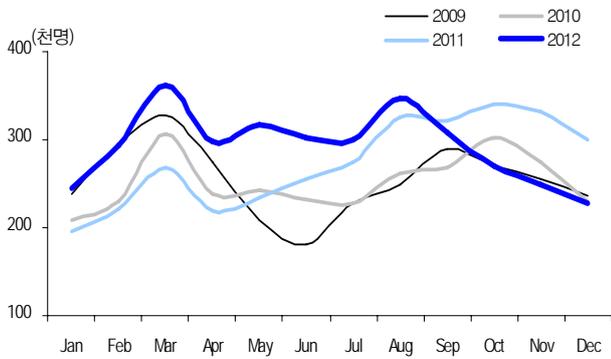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입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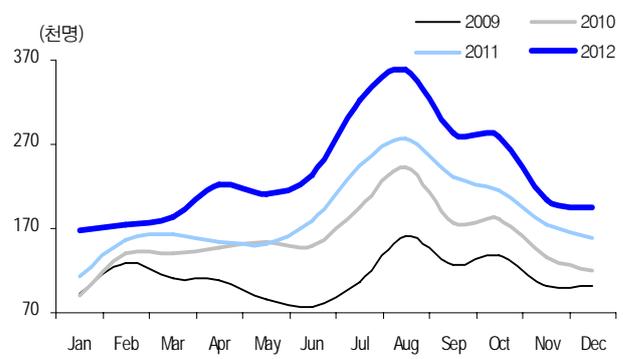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일본인 입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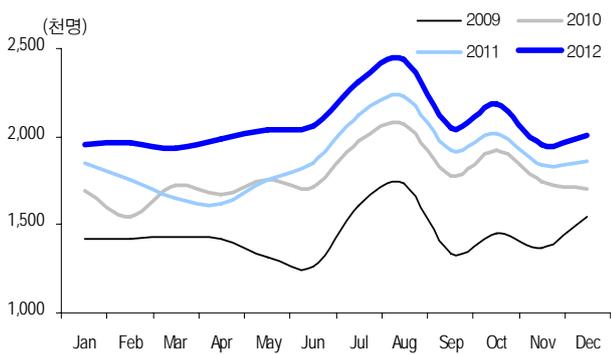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중국인 입국자 추이 (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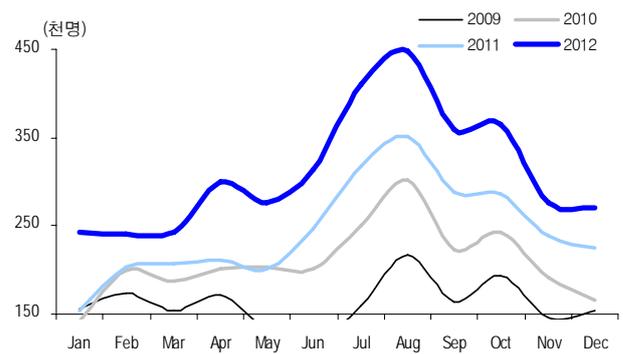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출국자+입국자 합산 추이 (월별)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입국자 추이 (월별)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출입국자 추이 (연도별)

(천명)	07	08	09	10	11	12	13F	14F	15F	16F	17F
출입국자 합계	19,773	18,887	17,312	21,286	22,489	24,877	26,212	27,637	29,325	31,172	33,175
출국자 (승무원포함)	13,325	11,996	9,494	12,488	12,694	13,737	14,465	14,976	15,601	16,264	16,940
입국자	6,448	6,891	7,818	8,798	9,795	11,140	11,748	12,662	13,723	14,907	16,235
일본	2,236	2,378	3,053	3,023	3,289	3,519	3,032	2,838	2,699	2,623	2,610
중국	1,069	1,168	1,342	1,875	2,220	2,837	3,469	4,126	4,894	5,731	6,645
대만	335	320	381	406	428	548	644	742	833	928	1,042
홍콩	140	160	216	229	281	360	425	494	563	631	702
동남아	967	1,066	1,082	1,305	1,416	1,623	1,811	1,987	2,148	2,294	2,420
기타	1,701	1,798	1,743	1,959	2,161	2,258	2,366	2,475	2,587	2,700	2,817
(% YoY 증감률)											
출입국자 합계	11.3	(4.5)	(8.3)	23.0	5.6	10.6	5.4	5.4	6.1	6.3	6.4
출국자 (승무원포함)	14.8	(10.0)	(20.9)	31.5	1.6	8.2	5.3	3.5	4.2	4.2	4.2
입국자	4.8	6.9	13.4	12.5	11.3	13.7	5.5	7.8	8.4	8.6	8.9
일본	(4.4)	6.4	28.4	(1.0)	8.8	7.0	(13.8)	(6.4)	(4.9)	(2.8)	(0.5)
중국	19.2	9.3	14.9	39.7	18.4	27.8	22.3	18.9	18.6	17.1	15.9
대만	(0.9)	(4.5)	18.9	6.8	5.4	28.0	17.5	15.2	12.2	11.4	12.3
홍콩	(1.9)	14.4	34.6	5.9	22.9	28.2	18.0	16.2	14.1	12.0	11.2
동남아	8.5	10.3	1.6	20.6	8.5	14.6	11.6	9.7	8.1	6.8	5.5
기타	10.0	5.7	(3.1)	12.4	10.3	4.5	4.8	4.6	4.5	4.4	4.3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추정

외국인 입국자 추이(월별)

날짜	전체입국자 (명)	일본인 (명)	중국인 (명)	전체입국자 (% YoY)	일본인 (% YoY)	중국인 (% YoY)
Dec.10	677,366	229,806	119,061	2.4	(2.8)	17.4
Jan.11	586,152	196,301	113,927	2.9	(6.2)	24.8
Feb.11	667,089	221,318	157,019	4.4	(3.9)	11.7
Mar.11	781,286	268,355	163,261	1.5	(12.3)	15.4
Apr.11	754,458	220,142	153,875	3.3	(7.9)	4.2
May.11	743,464	234,626	152,347	1.9	(2.9)	(1.1)
Jun.11	795,850	254,872	179,508	10.8	10.0	19.6
Jul.11	881,809	275,317	244,573	16.8	21.0	25.3
Aug.11	977,296	325,927	276,299	17.2	24.3	14.2
Sep.11	906,813	321,231	231,462	18.6	19.9	31.4
Oct.11	988,320	340,172	214,681	13.3	12.4	18.3
Nov.11	869,876	331,721	174,164	17.8	20.7	27.9
Dec.11	842,383	299,069	159,080	24.4	30.1	33.6
Jan.12	753,793	244,370	167,022	28.6	24.5	46.6
Feb.12	810,967	294,317	173,790	21.6	33.0	10.7
Mar.12	916,357	360,719	183,691	17.3	34.4	12.5
Apr.12	967,593	298,656	222,114	28.3	35.7	44.3
May.12	942,602	316,598	210,439	26.8	34.9	38.1
Jun.12	946,333	302,383	234,482	18.9	18.6	30.6
Jul.12	1,009,225	299,477	322,917	14.4	8.8	32.0
Aug.12	1,103,311	346,950	359,065	12.9	6.5	30.0
Sep.12	986,961	308,882	283,402	8.8	(3.8)	22.4
Oct.12	1,025,705	269,732	279,440	3.8	(20.7)	30.2
Nov.12	842,189	249,481	204,533	(3.2)	(24.8)	17.4
Dec.12	834,992	227,227	195,997	(0.9)	(24.0)	23.2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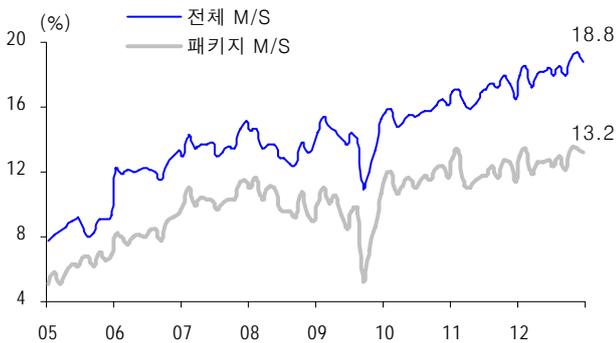
월별 출국자 추이 및 하나투어/모두투어의 송출객수

(명)	출국자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M/S (%)		모두투어 M/S (%)	
	전체	(% YoY)	승무원제외	(% YoY)	전체	(% YoY)	패키지	(% YoY)	전체	(% YoY)	패키지	(% YoY)	전체	패키지	전체	패키지
Dec.10	1,021,428	14.9	928,829	15.8	149,584	22.5	108,340	27.2	89,135	27.3	61,164	34.9	16.1	11.7	9.6	6.6
Jan.11	1,268,007	13.4	1,172,536	13.8	198,742	23.3	150,470	26.1	120,389	28.4	87,479	33.0	16.9	12.8	10.3	7.5
Feb.11	1,091,628	20.2	1,005,722	21.5	172,382	30.7	134,601	35.9	101,242	24.8	75,982	28.3	17.1	13.4	10.1	7.6
Mar.11	868,694	(8.6)	777,259	(10.0)	125,934	(1.4)	87,133	(5.1)	73,308	(7.6)	48,742	(11.1)	16.2	11.2	9.4	6.3
Apr.11	867,487	(7.3)	780,352	(8.3)	124,081	(3.0)	86,155	(9.1)	75,635	(2.0)	51,547	(4.8)	15.9	11.0	9.7	6.6
May.11	1,014,409	(0.9)	921,976	(1.1)	150,010	3.4	105,908	(2.3)	86,940	4.6	59,159	(0.0)	16.3	11.5	9.4	6.4
Jun.11	1,053,658	5.6	962,049	5.6	163,041	16.1	112,755	12.6	95,009	19.5	63,475	17.0	16.9	11.7	9.9	6.6
Jul.11	1,241,629	1.5	1,142,357	0.9	194,678	10.7	134,426	4.9	115,515	12.5	77,391	6.9	17.0	11.8	10.1	6.8
Aug.11	1,247,222	0.9	1,132,991	(0.6)	198,158	10.5	139,836	4.6	121,674	18.8	86,554	16.0	17.5	12.3	10.7	7.6
Sep.11	1,013,507	0.0	918,341	(0.5)	157,549	8.7	106,755	0.1	91,725	15.8	62,540	13.7	17.2	11.6	10.0	6.8
Oct.11	1,032,589	(2.2)	932,759	(3.2)	167,868	8.0	118,817	0.4	103,521	20.0	71,751	17.9	18.0	12.7	11.1	7.7
Nov.11	974,255	(3.0)	879,791	(3.8)	156,502	4.1	110,472	(2.1)	94,503	10.5	63,775	5.3	17.8	12.6	10.7	7.2
Dec.11	1,020,648	(0.1)	921,723	(0.8)	156,664	4.7	105,235	(2.9)	96,977	8.8	65,664	7.4	17.0	11.4	10.5	7.1
Jan.12	1,200,782	(5.3)	1,099,531	(6.2)	196,850	(1.0)	141,947	(5.7)	120,804	0.3	87,388	(0.1)	17.9	12.9	11.0	7.9
Feb.12	1,150,334	5.4	1,054,817	4.9	196,215	13.8	142,515	5.9	122,052	20.6	88,498	16.5	18.6	13.5	11.6	8.4
Mar.12	1,018,952	17.3	919,070	18.2	158,640	26.0	109,038	25.1	100,401	37.0	68,984	41.5	17.3	11.9	10.9	7.5
Apr.12	1,018,645	17.4	919,446	17.8	166,166	33.9	116,417	35.1	102,502	35.5	72,116	39.9	18.1	12.7	11.1	7.8
May.12	1,096,950	8.1	990,943	7.5	179,682	19.8	125,269	18.3	105,732	21.6	72,817	23.1	18.1	12.6	10.7	7.3
Jun.12	1,109,273	5.3	1,006,344	4.6	185,619	13.8	127,783	13.3	106,596	12.2	70,253	10.7	18.4	12.7	10.6	7.0
Jul.12	1,305,418	5.1	1,193,939	4.5	214,580	10.2	146,923	9.3	123,901	7.3	82,600	6.7	18.0	12.3	10.4	6.9
Aug.12	1,334,651	7.0	1,220,217	7.7	226,177	14.1	158,843	13.6	134,719	10.7	96,619	11.6	18.5	13.0	11.0	7.9
Sep.12	1,059,709	4.6	952,772	3.7	170,750	8.4	115,283	8.0	95,451	4.1	65,415	4.6	17.9	12.1	10.0	6.9
Oct.12	1,154,742	11.8	1,044,689	12.0	198,772	18.4	140,543	18.3	109,437	5.7	75,541	5.3	19.0	13.5	10.5	7.2
Nov.12	1,117,550	14.7	1,012,696	15.1	196,464	25.5	135,978	23.1	108,960	15.3	74,217	16.4	19.4	13.4	10.8	7.3
Dec.12	1,169,970	14.6	1,059,678	15.0	199,608	27.4	139,691	32.7	104,832	8.1	73,376	11.7	18.8	13.2	9.9	6.9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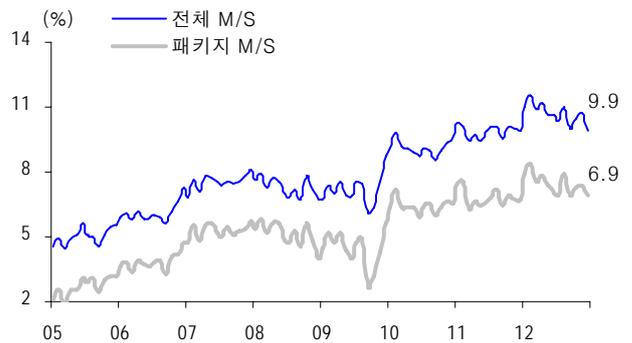
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시장점유율 계산시 승무원이 제외된 출국자를 기준으로 함

하나투어 시장점유율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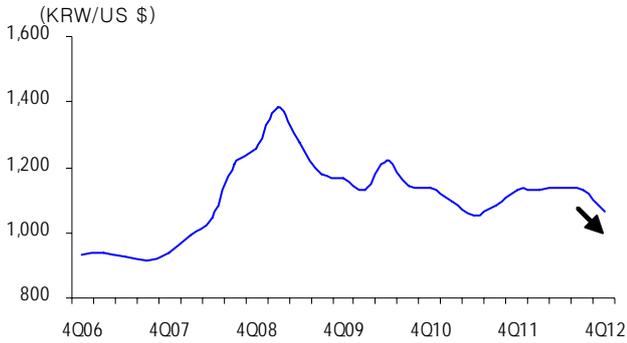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모두투어 시장점유율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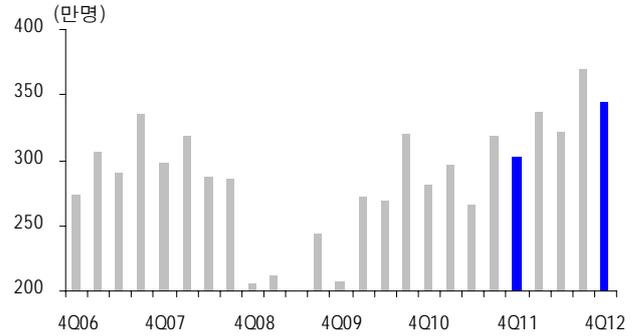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회사 자료, 신한금융투자

원/달러 환율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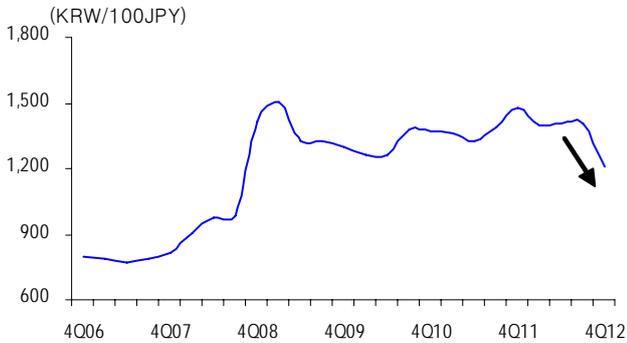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 Datastream, 신한금융투자

출국자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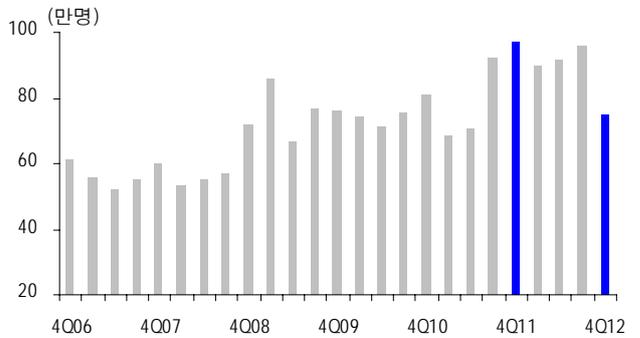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원/100엔 환율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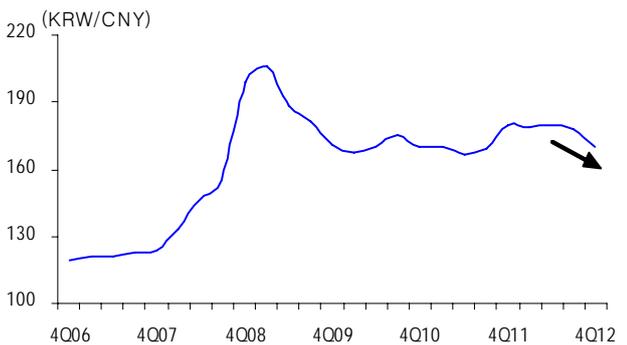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 Datastream, 신한금융투자

일본인 입국자 추이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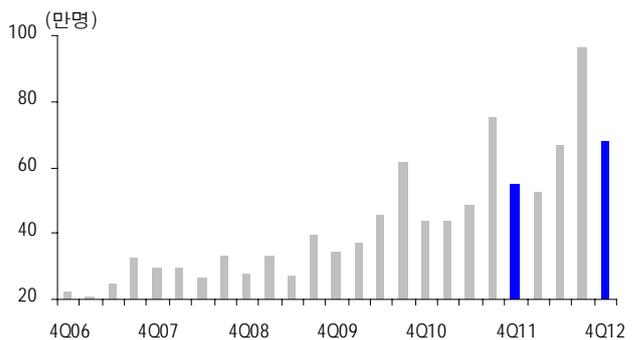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원/위안 환율 추이 (분기)



자료: Thomson Reuter Datastream,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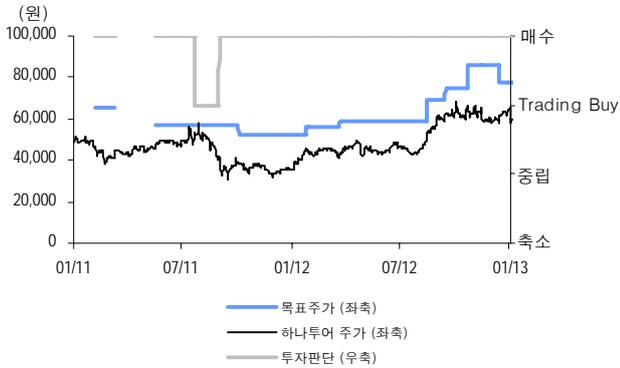
중국인 입국자 추이 (분기)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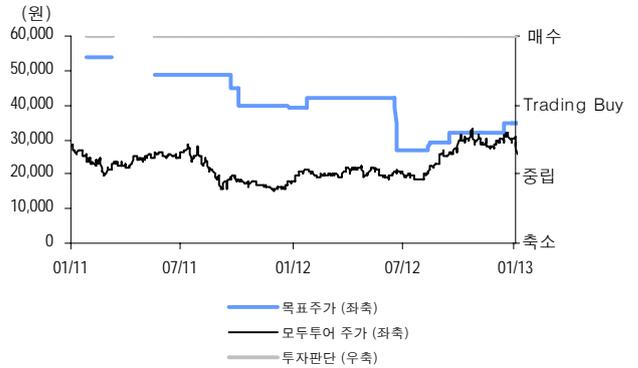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하나투어 (03913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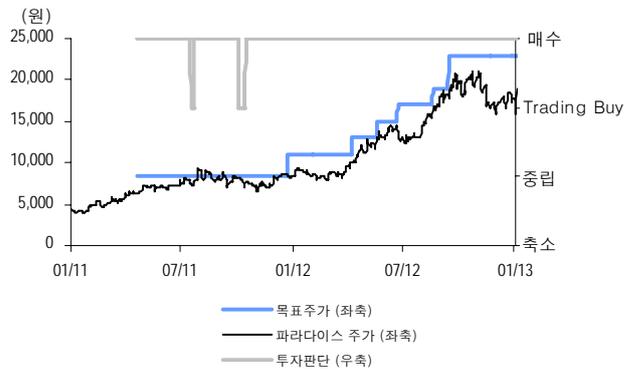
모두투어 (080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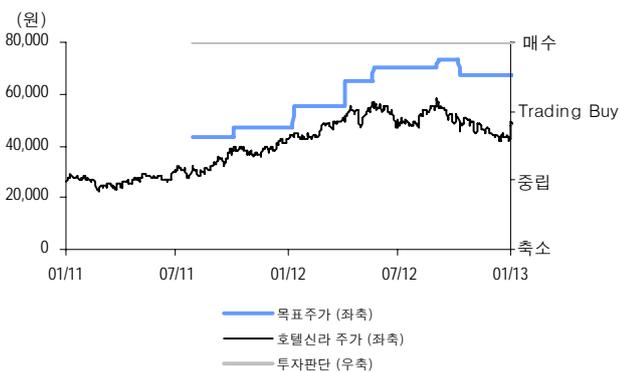
GKL (114090)



파라다이스 (034230)



호텔신라 (008770)



투자등급 (2011년 7월 25일부터 적용) : 매수 : +15% 이상, Trading BUY : 0~15%, 중립 : -15~0%, 축소 : -15% 이하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성준원)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